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10-09(통권 389호)
2010.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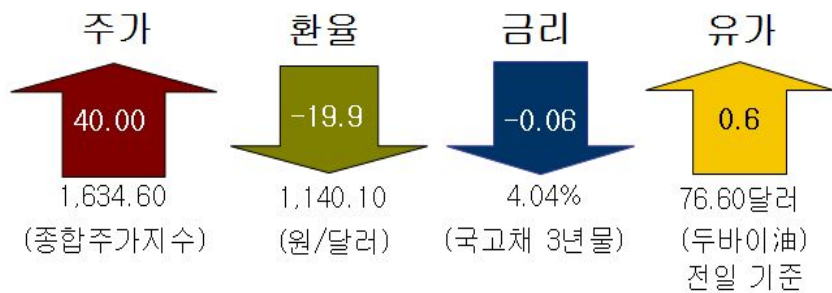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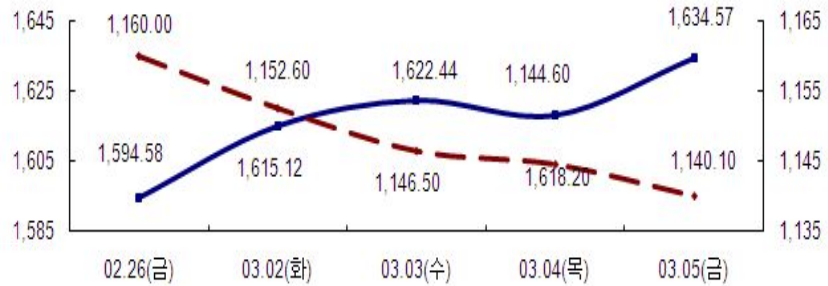


■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의
4가지 괴리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9~2.2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8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산업전략 본부장 (2072-6230)
 □ 산업전략본부 : 이 철 선 연구위원 (2072-6242, cslee@hri.co.kr)

□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 실태에 대한 여론조사

1. 청년실업과 정부 대책의 낮은 실효성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한국의 전체 실업률이 '08년도 3.2%에서 '09년도 3.6%로 0.4%p 상승하였지만 동기간 청년실업률은 7.2%('08)에서 0.9%p 상승한 8.1%('09)로 상승폭이 전체실업률에 비해 2배에 이른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08년부터 '일자리 제공', '창업 지원', '취업 인프라'의 3대 축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의 취업시장의 인프라적 접근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의 심리·행태적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년들의 취업관과 취업시장과의 괴리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생의 직업관 및 취업활동 실태

청년 구직자들의 심리·행태적 요인 분석을 위해 서울 및 지방 소재 22개 대학 재학생 57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직업관 및 취업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2010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직업관) 대학생들은 직업의 안정성(25.1%)을 가장 중요한 직업선택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기계발(24.0%), 연봉(23.3%)을 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위험이 따르는 '사업'(14.5%)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직장(85.5%)을 선호하고 있었다. 희망 직업으로는 사무직 회사원(39.9%)이 가장 많았고, 전문자유직(29.3%), 공무원(13.9%)의 순으로 이른바 '화이트칼라'에 대한 선호경향이 강했다. 특히 서울소재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사무직 회사원(52.2%)을 선호한 반면 지방대생들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30.9%)을 선호했다. 그리고 취업 조건에서는 '꼭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자리) 희망 취업기업의 규모에서는 대기업(71.3%) 선호가 강했다. 기업성격에서는 일반기업(56.4%)이 많았지만 공기업·공공기관(39.2%)의 선호도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희망 연봉은 2,500만 원 이상이 79.8%에 달했고, 높은 연봉을 반영한 듯 희망업종에서는 금융/보험업종(24.7%)이 가장 많았다.

(취업 준비활동) 대학생들은 취업 희망직장이 채용조건으로 '직무경력'(24.3%), '어학'(21.0%), '전공'(17.0%)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취업준비는 '학점관리'(88.1%), '자격증 획득'(76.9%), '인맥 만들기'(62.7%)에 치중하고 있었다. 취업준비 방법으로는 대학취업지원센터(68.1%), 공공취업지원센터(25.4%), 사설 취업관련 기관(21.7%)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선배 등 지인의 도움'(73.0%), '자기혼자'(69.0%)등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경향이 많았다. 취업준비 비용으로 월 평균 30만 원 이상 지출한다는 의견은 29.2%에 달했다. 또한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26.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취업실패 후 진로) '취업실패 시 대학원에 진학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진학 하겠다'는 의견이 37.5%로 나타났다. 진학이유로는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37.1%), '이력서에 경력을 채울 수 있어서'(5.6%) 등 취업준비를 위한 대학원 진학이 42.7%에 달했다. 한편 '원하는 직장 취업실패 시, 어느 정도 지나야 원하지 않는 직장이라도 가겠다는 마음이 들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서 '1~2년'(16.9%), '기간에 상관없이 원하는 직장에 가겠다'(18.3%)는 등 1년 이상 장기간 실업을 각오한 응답자가 35.2%였다. 그러나 '취업실패 시, 개발도상국 등 저임금 해외 취업을 고려해 보겠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2.0%가, 또 '100만 원 이하의 해외인턴십을 고려해 보겠는가?'라는 질문에서는 55.8%가 '고려해 보겠다'고 응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음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 원인에 대해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어서'(19.3%)보다 '있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75.6%)라는 응답이 높아 대학생들도 청년실업이 '일자리 mismatch'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대학생들의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의 4가지 괴리

직업관, 일자리, 구직활동, 취업실패 후 진로 등 4가지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인식과 취업시장 현실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직업관에서 대학생들은 안정성을 중요시하나, 현실의 취업시장은 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14.2%p), 1년 이내 퇴직자 중 20~29세의 자발적 퇴직률(27.1%)도 높아 안정적인 평생직장 개념이 희석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일자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신규 일자리 중 대기업 일자리(12.9%)는 적은 반면, 대학생들의 대기업 선호도(71.3%)는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임금에서도 취업시장의 대졸 신입 평균연봉이 2,440만원인데 반해 2,5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은 79.8%에 달했다. 셋째 구직활동에서 대학생들은 기업들이 직무경력, 어학, 학력 등의 채용조건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하지만 준비내용은 학점관리, 자격증 획득 등에 치중하고 있어 괴리가 존재한다. 또한 자기 혼자 취업을 준비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향도 높았다. 넷째, 취업실패 후 진로에서 대학생들은 대학원 진학(37.5%), 해외취업(55.8%)을 고려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원 진학률(9.6%), 해외취업 수(2,131명<'08>)를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4.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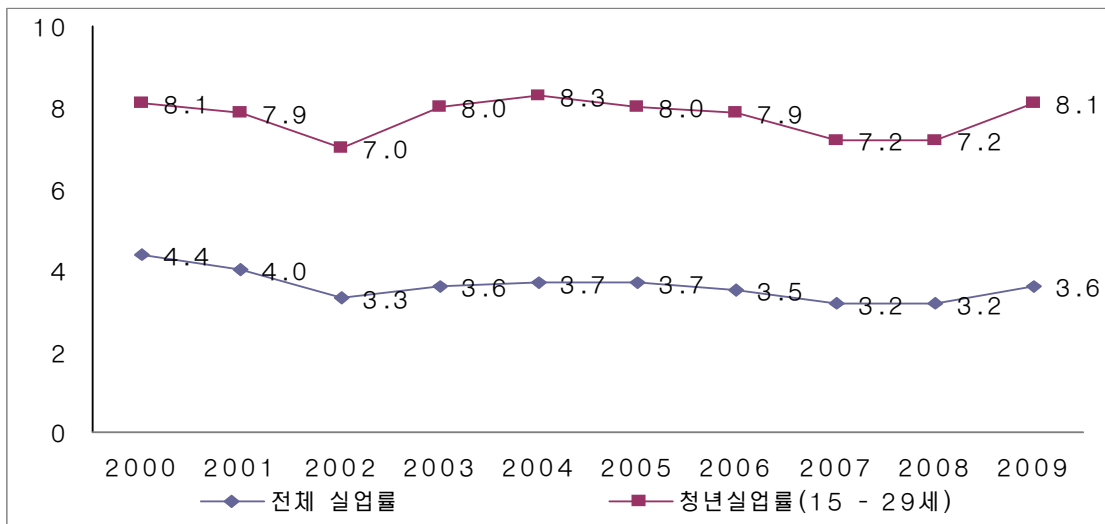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들의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에 존재하는 괴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정성 중심의 직업관 변화를 위해 창업중심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인식재고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의 취업시장 및 실물경제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학생 경험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구직활동 측면에서 정부는 학교취업센터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하되, 직접적인 취업알선과 더불어 경력관리 등 취업자문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업실패 후, 진로에 있어 해외취업 관련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의 확대와 홍보를 강화하고, 도피성 대학원 진학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1. 청년실업과 정부 정책의 낮은 실효성

-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로 전체 실업률이 상승하였지만 동일기간 청년실업률은 상승폭이 전체실업률에 2배에 이룸
 - 전체 실업률이 '08년도 3.2%에서 '09년도 3.6%로 0.4p 상승한 반면 동일기간 청년실업률은 7.2%<'08>에서 0.9%p 상승한 8.1%<'09>임
 - 청년실업문제는 한번 이탈한 취업시장으로 복귀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감소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국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임

< 연도별 청년실업률(15~29세) 추이 >

(단위: %)



자료: 통계청

- 정부도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취업 인프라'의 3대 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사업을 추진 중임
 - 우선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을 해외기업 → 정부·민간기업 →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 인턴제를 운영
 - 둘째로 '창업지원'은 청년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원금 → 훈련 → 준비·공간 지원으로 확대
 - 셋째로 '취업 인프라'라는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연계나 맞춤형 교육 등에 대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옴

< 정부의 청년실업 주요 대책('08~ '09) >

일시	정부 대책	주요 과제
2008. 4	- 글로벌 청년인력 10만 명 양성	- 해외취업(해외 취업연수, 해외건설인력 양성 등) - 해외인턴(대학생 현장학습 등) - 해외자원봉사(KOICA 해외봉사단 등)
2008. 8	- 청년고용 촉진대책	-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정부지원 인턴제 등) - 직업체험기회 확대/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마이스터고·대학 취업 경쟁력 강화 등) -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청년 New Start 프로젝트)
2009. 3	- 청년고용 추가대책	- 취약청년 취업지원(취업 장려 수당 등) - 교육 및 창업지원(대학 내 교육지원 등) - 청년인턴 지원(정부 지원 인턴 등) - 단기일자리 제공(학교 내 학습보조인력 등)
2009. 12	- 청년·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 - 학교와 중소기업간 맞춤형 훈련 및 취업연계 - 창직·창업 도전 지원

자료 : 노동부 보도자료, 2008~2009.

-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취업시장 인프라 측면 보다 청년들의 취업관 등 심리·행태적 측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안정성과 연봉이 높은 사무직 일자리로 정부가 추천하는 중소기업·해외기업과는 대상에서 미스매치가 존재함

< 15세 이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

구분	계	국가 기관	공기업 (공사)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 기업	해외 취업	자영업	기타
2006	100.0	33.5	11.0	17.1	3.3	3.7	15.4	2.4	2.8	9.8	1.1
2009	100.0	28.6	17.6	17.1	2.5	4.3	14.1	1.9	3.5	9.4	1.0
남자	100.0	26.5	18.7	19.3	3.6	3.7	12.0	2.3	2.7	10.3	0.8
여자	100.0	30.6	16.5	14.9	1.5	4.8	16.0	1.6	4.4	8.5	1.2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09.

주 : 전국 17,000 표본조사, 약 37,000명을 대상으로 2009.7.6~7.20.(15일) 동안 조사

- 본고에서는 대학생들의 직업관과 구직행동 등 심리·행태적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청년실업대책의 비효율성 원인을 진단하고자 함
- 2010년 2월 현재 전국 2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7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취업관 및 구직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직업관 및 취업활동에 관한 대학생 설문조사

- (개요) 취업을 앞둔 서울 및 지방 2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7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직업관 및 취업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서울소재 8개 대학, 지방소재 국립대 8개 대학과 사립대학 6개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조사함
 - 조사기간은 2010년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간이었음

< 설문 조사 Sampling >

(단위: 개, 명, %)

구분	서울소재 대학			지방 국립대			지방사립대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대학수	10	8	80.0	9	8	88.9	9	6	66.7
응답자	300	208	69.3	270	263	97.4	270	103	38.1
참여대학	-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한경대, 제주대, 충북대, 전남대			- 영남대, 조선대, 우석대, 서원대, 한중대, 수원대		

- (응답자 특성) 졸업예정자인 4학년생이 55.3%였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3학년생이 24.2%였음
 - 계열별로는 인문(30.7%), 상경(29.8%), 공학(17.9%)로 가장 많았음

< 응답자 특성 >

구분	전체	서울 소재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전체(명)	574	208	366	263	103	
성별(%)	남자	49.2	33.7	58.2	57.9	58.8
	여자	50.8	66.3	41.8	42.1	41.2
학년(%)	1학년	4.8	6.9	3.6	1.5	9.3
	2학년	15.7	3.9	22.3	22.6	21.6
	3학년	24.2	12.3	31.0	32.2	27.8
	4학년	55.3	76.8	43.0	43.7	41.2
전공(%)	인문	30.7	38.5	26.2	28.1	21.4
	상경	29.8	35.1	26.8	31.9	13.6
	자연	8.9	7.2	9.8	9.5	10.7
	교육	3.8	1.0	5.5	5.3	5.8
	공학	17.9	13.5	20.5	19.4	23.3
	의학	1.0	0.5	1.4	0.0	4.9
	예체능	2.4	2.4	2.5	2.7	1.9
	기타	5.4	1.9	7.4	3.0	18.4

○ 직업관

- (직업선택 기준) 대학생들은 직업의 안정성(25.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자기 계발(24.0%), 연봉(23.3%)의 순이었음
- 지방대학 학생들은 안정성(32.2%)을, 서울소재대학 학생들은 자기 계발(31.7%)과 사회적 인정(19.2%)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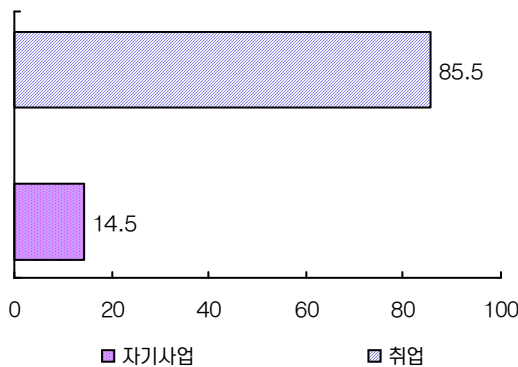
< 직업선택 기준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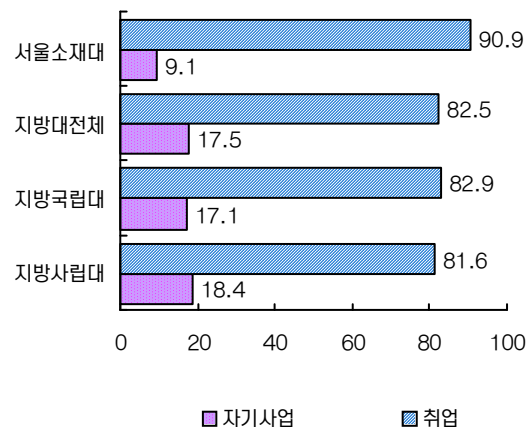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울소재 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수(명)	574	208	366	263	103
안정성	25.1	12.5	32.2	32.3	32.0
자기 계발	24.0	31.7	19.7	20.2	18.4
연봉	23.3	22.1	24.0	24.7	22.3
사회적 인정	15.3	19.2	13.1	12.9	13.6
시간적 여유	7.1	9.1	6.0	5.7	6.8
대학 전공	5.1	5.3	4.9	4.2	6.8

- (직업선택) 직업관련 향후 위험이 따르는 '자기사업'을 한다는 의견은 14.5%인 반면 안정성이 높은 취업은 85.5%였음
-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90.9%로, 지방소재 대학 학생의 82.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기사업 vs 취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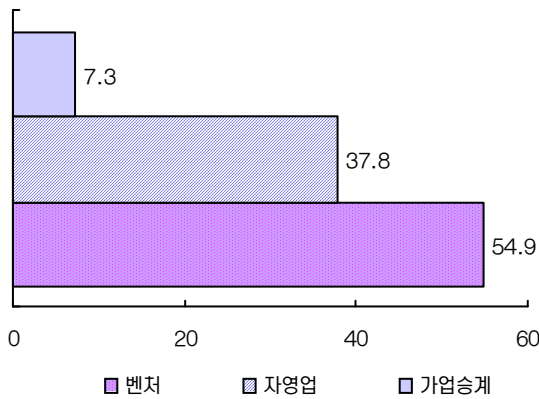


< 대학소재지별 직업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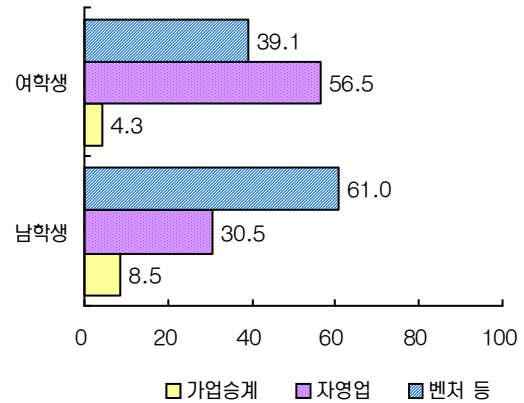


- (자기사업 방법) 대학생들은 벤처(54.9%)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사 등 자영업(37.8%), 가업승계(7.3%) 순이었음
- 남학생들(61.0%)의 벤처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장사 등 자영업 선호비율이 56.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자기사업 방법 >



< 성별 자기사업 방법 >



- (희망직업) 사무직 회사원이 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문자유직 (29.3%), 공무원(13.9%) 순으로 이른바 '화이트칼러' 직업이 대부분이었음
- 서울소재 대학생들(52.2%)은 지방소재 대학생(32.8%)보다도 사무직 회사원에 대한 선호가 강했고,
-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선호도는 지방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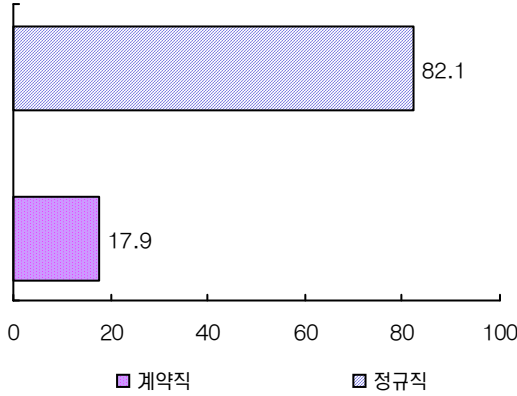
< 희망 직업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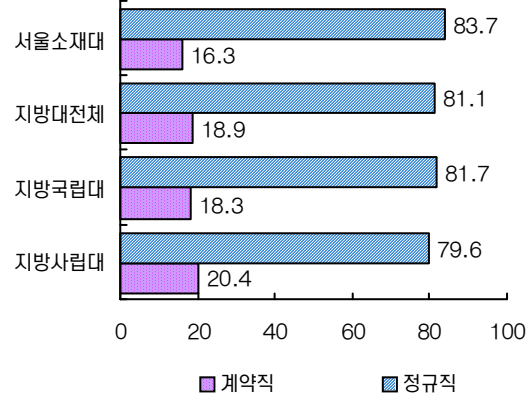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울소재 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수(명)	567	207	360	258	102
사무직 회사원	39.9	52.2	32.8	33.3	31.4
전문자유직	29.3	30.0	28.9	28.3	30.4
공무원	13.9	4.8	19.2	17.4	23.5
공공기관 직원	10.1	7.2	11.7	11.6	11.8
생산직 회사원	4.6	2.9	5.6	7.4	1.0
기타	2.3	2.9	1.9	1.9	2.0

- (취업 조건) 계약직(17.9%)보다는 '꼭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 취업 조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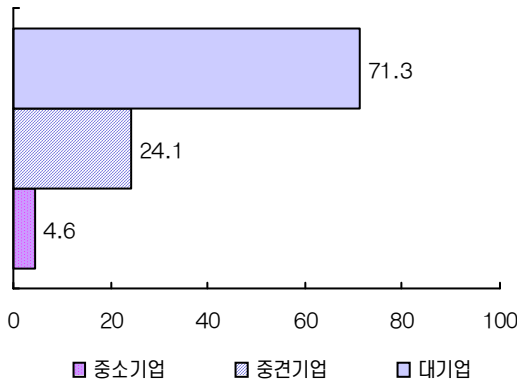
< 대학소재지별 취업 조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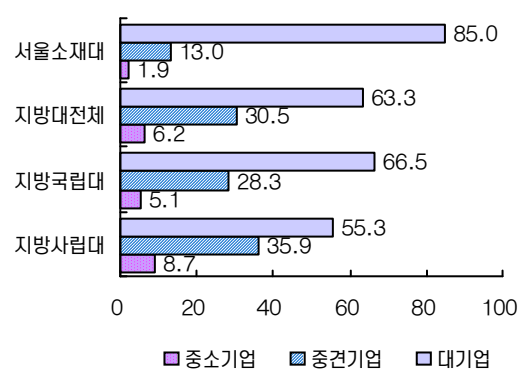
○ 일자리

- (희망취업 기업규모) 대기업이 71.3%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24.1%), 중소기업(4.6%)의 순이었으며 서울소재 대학의 대기업 선호 경향이 강했음

< 희망 취업기업 규모 >



< 소재지별 희망취업 기업규모 >



- (희망취업 기업성격) 일반기업이 5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기업(25.6%), 공공기관(13.6%), 벤처기업(4.4%)의 순이었음
 -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일반기업 선호경향이 69.1%로 지방대보다 높은 대신 지방대는 공기업(28.3%), 공공기관(16.4%) 선호 경향이 강해, 직업선택 기준인 안정성에 대한 선호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희망 취업기업 성격 >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소재 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수(명)	567	207	360	257	103
일반기업	56.4	69.1	49.2	48.2	51.5
공기업	25.6	20.8	28.3	28.0	29.1
재단 등 정부출연 공공기관	13.6	8.7	16.4	17.5	13.6
벤처기업	4.4	1.4	6.1	6.2	5.8

- (희망 연봉) 2,500만 원 이상이 79.8%에 달함

- 서울소재 대학의 경우 3,500만 원 이상 희망연봉자가 34.6%로 지방대학생 보다 높았고, 지방소재 대학생들은 2,000~2,500만원 희망 연봉자가 서울 소재대학생 보다 7.4%정도 많았음

< 희망 연봉 >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소재 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수(명)	573	208	365	262	103
3,000~3,500만 원	27.4	27.4	27.4	30.5	19.4
2,500~3,000만 원	26.9	24.5	28.2	27.1	31.1
3,500만 원 이상	25.5	34.6	20.3	22.5	14.6
2,000~2,500만 원	14.8	10.1	17.5	14.1	26.2
1,500~2,000만 원	4.7	3.4	5.5	4.6	7.8
1,500만 원 이하	0.7	0.0	1.1	1.1	1.0

- (희망업종) 금융/보험업종이 2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조(11.5%), 오락/문화/운동(9.9%), 교육 서비스업(9.8%)의 순이었음

- 상위 5위 업종에서 제조업이외 희망업종이 대부분 3차 산업인 서비스 업종으로 광업 등 1, 2차 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낮은 선호도를 반영함

< 희망 업종 >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 소재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수(명)	574	208	366	263	103
금융/보험업	24.7	27.9	23.0	25.9	15.5
기타	15.3	17.3	14.2	15.2	11.7
제조업	11.5	13.0	10.7	9.9	12.6
오락/문화/운동	9.9	11.1	9.3	11.0	4.9
교육 서비스업	9.8	9.1	10.1	7.6	16.5
보건/사회복지	6.3	1.9	8.7	5.3	17.5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4.5	4.8	4.4	4.9	2.9
건설업	4.4	3.8	4.6	3.4	7.8
통신업	3.7	4.8	3.0	2.7	3.9
전기/가스/수도	2.8	1.0	3.8	4.6	1.9
숙박/음식업	2.6	1.9	3.0	2.7	3.9
도소매업	2.1	2.4	1.9	2.7	0.0
건설자재 등 광업	0.9	0.0	1.4	1.5	1.0
운수업	0.7	0.0	1.1	1.5	0.0
부동산/임대업	0.7	1.0	0.5	0.8	0.0
농업/어업	0.2	0.0	0.3	0.4	0.0

○ 구직활동

- (취업준비 방법) 선배 등 지인의 도움(73.0%), 자기혼자(69.0%)등 전문가의 도움보다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음
 - 공공취업센터(25.4%), 사설취업관련 전문가(21.7%)의 비율이 낮고 그나마 학교취업센터의 이용(68.1%)이 많은 편이었음
 - 특히 서울소재대학은 학교취업센터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79.9%로 높은 반면, 지방대학은 선배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견이 높음

< 취업 준비방법 >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 소재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선배 등 지인의 도움을 받아	73.0	72.0	73.5	72.5	76.0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69.0	70.6	68.0	70.7	61.6
학교 취업지원센터 이용	68.1	79.9	60.6	65.4	49.5
원하는 직업/직장에 계신 분들 도움	59.8	62.2	58.3	55.0	65.6
공공 취업센터의 도움을 받아	25.4	20.0	28.7	26.4	33.7
사설 취업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1.7	19.5	23.1	22.1	25.3

- (취업준비 비용) 월 평균 30만 원 이하(49.7%) 지출이 가장 많았고, 30만 원 이상 지출도 29.2%에 달해 과외비용이 상당부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13.6%)의 경우 50~100만 원 이하에서 지방대학(11.0%) 보다 많은 반면, 30만 원 이하에서는 서울(46.6%)보다 지방대학(51.5%)이 많았음

< 취업 준비방법 >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 소재 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 수(명)	571	206	365	262	103
전혀 없다	21.0	22.8	20.0	19.5	21.4
30만 원 이하	49.7	46.6	51.5	52.3	49.5
30~50만 원 이하	17.3	17.0	17.5	18.3	15.5
50~100만 원 이하	11.9	13.6	11.0	9.9	13.6

- (채용조건) 취업 희망직장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채용조건으로 3위안에 드는 것은 직무경력(24.3%)과 어학(21.0%), 전공여부(17.0%)였음
 - 어학과 학력에 대해서 서울소재 대학생들이 지방사립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 자격증 획득에 있어서는 지방대학(14.5%) 학생들이 서울소재 대학 학생(6.7%)들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채용시 중요 조건(중복응답) >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 소재 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수(명)	1148	416	732	526	206
다양한 직무경력	24.3	25.5	23.6	23.2	24.8
어학	21.0	23.8	20.8	22.6	16.0
전공여부	17.0	17.1	16.9	15.8	19.9
학력	14.3	20.7	10.7	10.8	10.2
자격증 획득	11.7	6.7	14.5	12.7	18.9
기타	4.8	2.4	6.1	6.8	4.4
고시/공무원시험 통과	3.3	2.2	4.0	4.2	3.4
외모	1.8	0.7	2.5	2.7	1.9
인맥과 배경	1.0	1.0	1.0	1.1	0.5

- (취업준비 내용) 학점관리(88.1%), 자격증 획득(76.9%), 인맥만들기(62.8%), 등에 치중함

- 서울소재대학은 선배 등 인맥 만들기(66.3%), 인턴 등 직무경험(67.2%), 어학연수(53.3%) 등에서 지방소재 대학 보다 더 치중하는 반면,
- 지방소재 대학은 '관련업종 자격증 획득(81.8%), 고시/공무원 시험준비(26.0%)에서 서울소재 대학보다 높았음

< 취업 준비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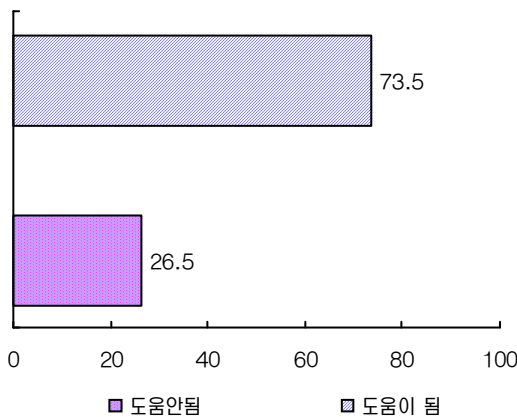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 소재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학점관리	88.1	87.6	88.6	87.6	90.3
관련업종 자격증 획득	76.9	68.5	81.8	81.1	83.5
선배 등 인맥 만들기	62.8	66.3	60.7	59.1	64.3
인턴 등 직무경험	61.4	67.2	57.8	56.9	59.8
취업 스터디 모임	53.3	52.0	54.0	56.4	48.5
어학연수	48.2	53.3	45.3	49.2	35.7
유학/대학원 등 진학준비	33.8	33.7	33.9	35.5	30.3
고시/공무원시험 시험 준비	20.5	11.2	26.0	25.7	26.8
성형수술	5.6	3.7	6.7	6.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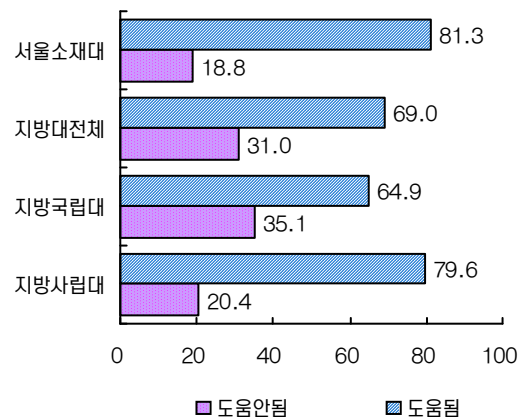
-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관계)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서울(18.8%)과 지방대학(31.0%)간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고 지방 국립대의 경우 35.1%에 달했음

< 대학교육과 취업과의 관계 >



< 대학소재지별 의견 >



- (대학교육의 취업요소) 전공교육(55.6%), 학교이름(20.6%), 선배 등 인맥(15.1%)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소재 대학(30.1%)의 경우, 학교이름에 대한 비율이 지방대학(14.3%) 보다 높았을 뿐 다른 취업요소에서는 지방대학이 모두 높았음

< 대학교육의 취업 요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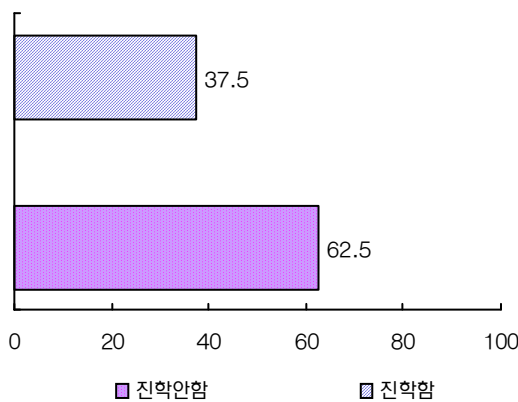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소재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 수(명)	417	166	251	169	82
전공교육	55.6	51.2	58.6	59.8	56.1
학교이름	20.6	30.1	14.3	16.6	9.8
선배 등 인맥	15.1	13.9	15.9	13.6	20.7
학점	5.3	3.6	6.4	4.7	9.8
교수추천	3.4	1.2	4.8	5.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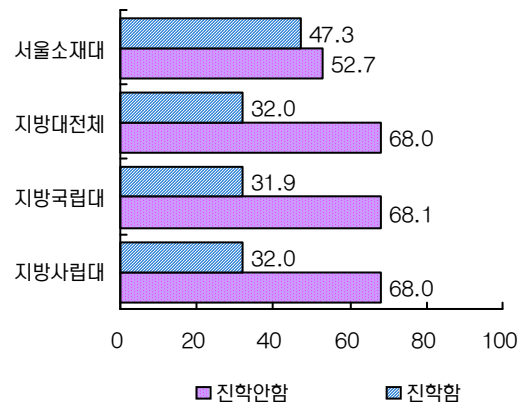
○ 취업실패 시, 진로

- (대학원 진학) 취업을 실패했을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응답자가 37.5%에 달함
- 이런 현상은 서울소재 대학이 47.3%에 달해 지방대(32.0%) 보다 약 15.3% 높았음

< 취업실패 시, 대학원 진학의도 >



< 대학소재지별 대학원 진학의도 >



- (대학원 진학 이유) '더 공부하고 싶어서'(57.3%)가 가장 많았고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37.1%), '경력을 채울 수 있어서(5.6%)' 순이었음
- 그러나,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37.1%), '이력서에 경력을 채울 수 있어서 (5.6%)' 등 취업준비용 대학원 진학이 43.7%에 달했음

< 취업에 도움이 되는 대학교육 요소 >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소재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 수	213	98	115	83	32
더 공부하고 싶어서	57.3	59.2	55.7	55.4	56.3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37.1	35.7	38.3	39.8	34.4
이력서에 경력을 채울 수 있어서	5.6	5.1	6.1	4.8	9.4

- (눈높이 낮추기 기간) 1년 정도(35.6%) 기간이 걸린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1~2년', '기간에 상관없다' 등 1년 이상도 35.2%에 달했음
- 눈높이를 낮추는데 6개월~1년 정도 걸린다는 의견은 지방대학(59.9%) 보다 서울소재 대학(73.1%)이 높았음
- 반면에 1년 이상 걸린다는 의견은 서울(26.8%)보다 지방대학(40.0%)이 높아 장기 청년실업자가 지방대학 출신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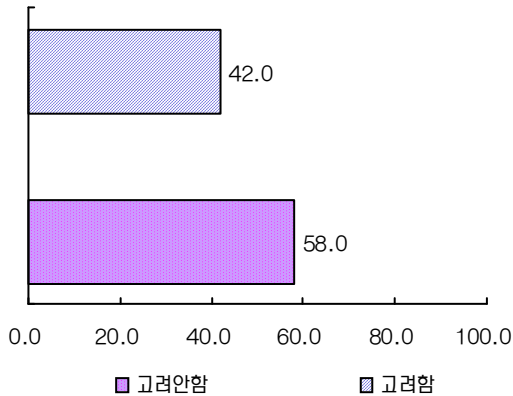
< 눈높이 낮추기 까지 기간 >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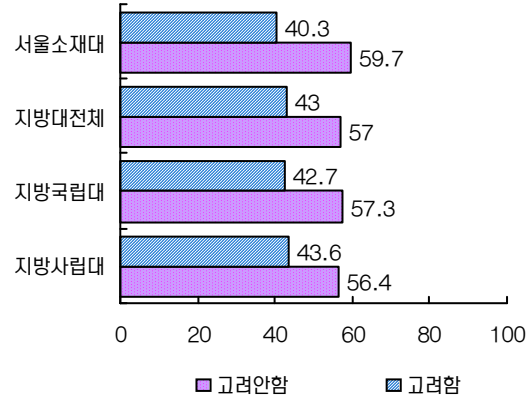
구분	전체	서울소재대학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 수(명)	567	205	362	261	101
6개월 정도	29.1	34.1	26.2	23.0	34.7
1년 정도	35.6	39.0	33.7	37.5	23.8
1~2년 정도	16.9	10.2	20.7	21.1	19.8
기간에 상관없다	18.3	16.6	19.3	18.4	21.8

- (저임금 해외취업) 취업실패 시, 개발도상국 등 저임금의 해외 취업을 고려해 보겠냐는 의견에 42.0%가 고려해 보겠다고 응답함
- 특히 '1년 이상' 장기간이 걸려도 원하는 직장에 가겠다는 지방대학생들의 고려의도가 높아 지방의 기업 부족이 장기실업의 원인으로 추정됨

< 저임금 해외취업 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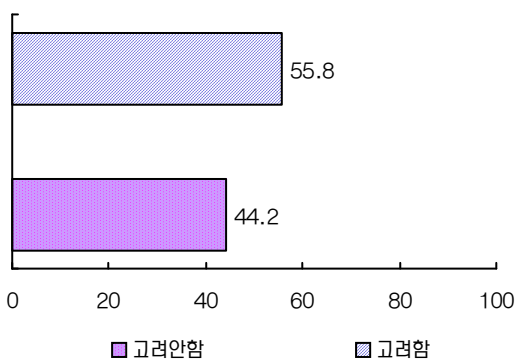
< 대학소재지별 해외취업 의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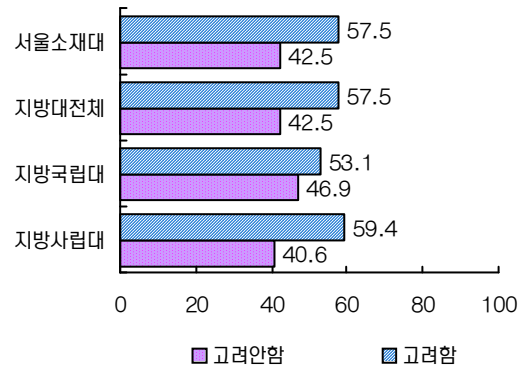
- (저임금 해외 인턴십) 취업실패 시, 100만 원 이하의 해외 인턴십을 고려해 보겠냐는 의견은 55.8%로 상당히 높았음

- 저임금 해외취업 고려(42.0%)보다 13.8% 높게 나타난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 가기위해 필요한 직무경험의 기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
- 현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인턴십 제도 활용이 청년실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도 제공한다고 판단됨

< 저임금 해외인턴십 의향 >



< 대학소재지별 해외인턴십 의향 >



- (청년실업 원인) '일자리가 없어서'(19.3%)보다 '있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75.6%) 등 '일자리 미스매치'를 주요 원인으로 들었음

-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응답은 '있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75.6%)와 '고시 등 전문직 자격증 준비(3.0%)'를 포함해 78.6%에 달함

< 청년실업의 주된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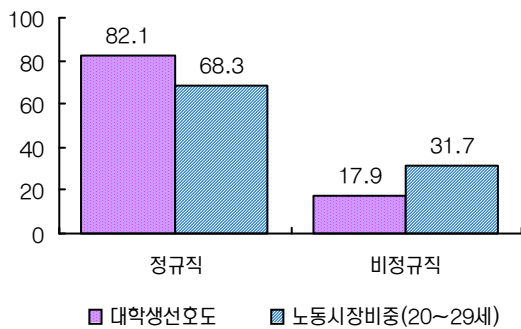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서울 소재	지방대학		
			전체	국립	사립
응답자 수(명)	574	208	366	263	103
일자리가 있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	75.6	77.9	74.3	73.0	77.7
일자리가 없어서	19.3	19.2	19.4	20.5	16.5
고시 등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3.0	1.0	4.1	4.2	3.9
취업 안 해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서	0.9	1.0	0.8	1.1	0.0

3. 대학생들의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의 괴리

- (종합평가) 직업관, 일자리, 구직활동, 취업실패 시 진로, 4가지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취업관과 취업시장 현실간에 괴리가 존재함
- (직업관) 청년들은 안정성을 선호하나 취업시장에서 '정규직'이 부족하고, 취업 후, 젊은 직장인들의 1년 미만 퇴직률도 높은 상황임
 - 20~29세 일자리는 2009년 8월, 347만 명이며, 이중 안정적인 정규직은 68.3%이지만, 대학생들의 정규직 선호율은 82.1%로 14.2%p 격차가 발생
 - 1년 미만 퇴직자 중 20~29세 자발적 퇴직자는 27.1%로 '한번 직장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젊은 직장인들에게서 희석화되고 있음

< 정규직 일자리 차이 >



자료: 통계청,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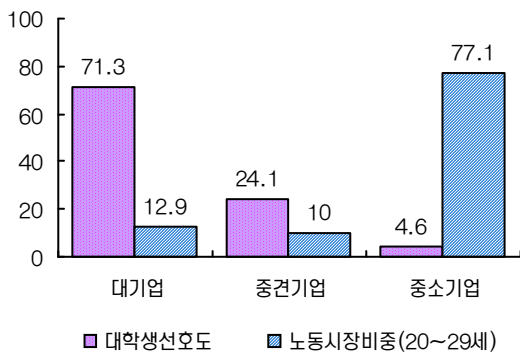
< 2008년도 고용보험 상실자 >

구분	전체	
	명	비율(%)
1년 미만 근무자	2,679,740	100.0
20~29세	1,104,931	41.2
자발적 퇴직자	727,340	27.1
전직·자영업 등	134,527	5.0
결혼·가사	17,092	0.6
개인적 사정	575,721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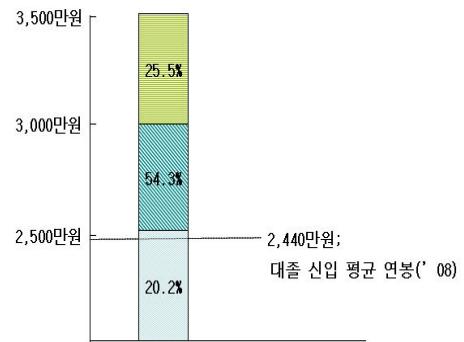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 (일자리) 대기업 수요 대비 58.4%의 학생 과잉공급이 존재하고, 대졸 신입 평균연봉이 2,440보다 높은 2,500만 원 이상 요구 학생이 79.8%임
 - 2008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 중 대기업은 14만 명(12.9%) 수준이나 대학생들의 대기업 취업 희망자는 71.3%에 달해 58.4%의 과잉공급이 존재함
 - 2008년 12월 대졸 신입 평균 연봉은 2,440만원이나 2,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79.8%에 달함

< 기업규모별 일자리 차이 >



< 연봉 차이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주: 신규고용보험 취득자수를 일자리로 추정

자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08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20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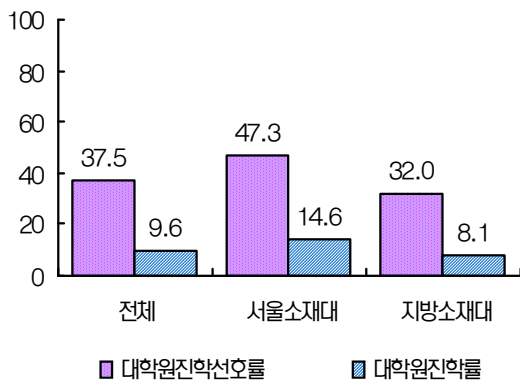
- (구직활동) 기업의 채용조건과 준비내용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취업활동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음
 - 희망기업의 채용조건 4위인 전공, 5위인 자격증 획득과 각각 연결되는 학점관리(1위)와 자격증 획득(2위)에 대학생들이 과도하게 치중하는 반면,
 - 채용조건 1위인 직무경력과 2위인 어학의 준비에서는 인턴 등 직무경험이 4위, 어학연수 등 어학준비는 6위로 나타남

< 희망기업의 채용기준과 학생들의 준비내용의 차이 >

순위	채용기준	%	순위	준비내용	%
1	직무경력	24.3	1	학점관리	88.1
2	어학	21.0	2	자격증 획득	76.9
3	학력	17.0	3	선배 등 인맥 만들기	62.8
4	전공여부	14.3	4	인턴 등 직무경험	61.4
5	자격증 획득	11.7	5	취업 스터디 모임	53.3
6	고시/공무원시험 통과	3.3	6	어학연수 등 어학준비	48.2
7	외모	1.8	7	유학/대학원 진학	33.8
8	인맥과 배경	1.0	8	고시/공무원 시험 준비	20.5

- (취업실패 후, 진로) 청년들은 대학원 진학, 해외취업 가능성을 두고 있으나, 대학원 진학률과 해외취업 업종에서,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취업실패 시, 대학원 진학의향은 37.5%에 이르나 2009년 국내 대학원 진학률은 전체 졸업자 중 9.6%에 불과함
 - 해외취업(42.0%), 해외인턴십(55.8%) 고려의향이 높으나, 2008년 대학졸업자중 해외취업자는 0.6%에 불과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대학원진학 계획률과 진학률 >



< 2008년 대학 졸업자 취업경로 >

구분	전체	
	명	비율(%)
대학졸업자	282,670	100.0
진학자	27,072	9.6
입대자	5,461	1.9
취업자	170,878	60.5
국내 취업자	168,747	59.7
해외 취업자	2,131	0.6
실업자	79,259	28.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200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2009

4. 정책적 시사점

- (직업관) 창업중심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인식제고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의 취업시장 및 실물경제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속에 대비 과도한 안전 성향의 취업관은 취업시장에 대한 대학생들의 판단능력 감소와 실업자 양산을 불러올 수 있음
 - 현 대학교육에서 부족한 취업시장 및 직업관, 실물경제에 대한 지식 보완을 위해 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05년부터 초등학교 등에서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 활성화 중임

- (일자리) 해외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학생 경험 증진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함
 - 중소기업형 맞춤형교육 추진 등 기업체와 구직자들과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보다 시급한 것은 청년들의 잘못된 중소기업 기피현상임
 - 대학별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의 우수 중소기업 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인식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국가적인 캠페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는 방법도 실시해야 할 것임

- (구직활동) 학교 취업센터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하되, 직장연계와 더불어 취업준비, 경력관리 등 직업 자문의 역량도 강화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취업과외비용 등 구직활동의 비효율성을 양산하고 있는 주요원인 중 하나는 대학생들이 직업과 직장을 찾는데 전문가 도움이 적다는 것임
 - ‘일자리가 있어도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75.6%) 청년실업이 증가한다는 의견은 정부의 일자리중심 연계사업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음
 - 대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취업센터의 역량사업을 강화하되, 직업관련 취업준비 자문능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취업실패 후 진로) 해외취업 관련 ‘글로벌 청년리더 사업’의 개선 및 확대를 추진하고, 도피성 대학원 진학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 취업실패 시 해외취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려의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글로벌리더 10만 명 양성’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정부사업이 대졸 기능직, 중국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질적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 지사 등을 연계한 일자리확보를 추진할만함
 - 기존의 연수기관을 통한 모집이외에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나 대학에서 직접추천을 받는 등 지원자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도 고려할 만함
 - 한편, 취업실패로 인한 도피성 대학원 진학에 따른 가계부담 과중, 취업에 대한 리스크 상승 등 부작용을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임

이 철 선 연구위원 (cslee@hri.co.kr, 2072-6242)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5	-6.4	-0.7	2.2	5.9	2.7
유로 지역	0.7	0.7	-0.3	-0.4	-1.9	-3.9	-2.5	-0.1	0.4	-	1.0
일본	-1.2	3.8	-5.2	-4.3	-11.4	-5.0	-12.3	5.2	0	4.6	1.7
중국	9.0	10.6	10.1	9.0	6.8	8.7	6.1	7.9	8.9	10.7	10.0
한국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26일	3월05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63	3.60	-0.03p
	엔/달러	90.76	96.65	92.93	89.17	89.15	-0.02¥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544	1.3575	0.0031\$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321	10,444	123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0,102	10,146	4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4.10	4.04	-0.06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60.0	1,140.1	-19.9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594.6	1,634.6	40p

주: 3월 5일 해외지표는 전일(3월 4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26일	3월05일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78.00	80.40	2.40\$
	Dubai	36.45	71.85	78.06	76.00	76.60	0.60\$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0.87	274.80	3.9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